

지역 소식통

정읍시 12월 청원 조희
시정 주요 핵심사업 공유

정읍시가 올해 시정 전반에 걸친 성과와 추진상황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8일 정읍시체육회관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6급 이상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중 청원조치를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이날 "코로나 19 비상근무와 방역 활동, 백신 접종 등 그간 시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국가재난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 시정 전반에 대해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군민 대토론회 제2차
고창문화민회' 성료

고창문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유기상), 고창문화도시 시민추진단,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설정환)가 함께 준비한 제2차 고창문화민회와 지난 6일 고창읍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시민사회단체, 교육, 농수축산업 등 각계 인사와 군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민회에서는 시민추진단 각 분과활동 대표자들이 김일수, 황향숙, 조순임, 신미희, 정아름다름의 라운드테이블 성과 발표에 이어 5개 분과로 나누어 의제별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열린 모뎀별 의제별 토론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공동체를 위한 정원가꾸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구축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주도 문화커버넌스 구축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시민활동가 및 공동체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논의가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어촌 5개 지구사업 착착

고창군,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

고창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어촌의 미래. 고창군이 상포권역을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성공시키면서 어촌뉴딜 공모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부안·홍덕면의 '상포권역'이 선정됐다. 이로써 고창군은 4년 연속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019년 동호항을 시작으로 2020년 죽도항과 광승항, 2021년 고리포지역, 2022년 상포권역(상포·반월·후포)까지 5개지역 5관왕의 대업을 달성했다.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은 3개년(2022~2024년) 국비 등 약 82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흡수원이자 블루카본의 근원인 고창갯벌(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과 탐사르습지를 따라 탄소중립 식물원, 탄소제로 축육체험장, 탄소제로 갯벌생태원, 탄소중립 어영장과 자연가뭇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탄소제로 축육체험장이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후포해수탕을 특화해 해양체험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상포권역민의 차별화

된 컨텐츠를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잠재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시포 국가어항이 해수부의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지도 최대 관심사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1월 해양수산부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전국 2개소 공모사업에 구시포 국가어항을 신청했다.

군은 이날 중순에 예정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내실있게 준비해 해양수산분야 뉴딜사업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정읍시에 각계각층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정읍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 이어져

연말연시를 맞아 정읍시에 각계각층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정읍소명교회(목사 김상열)는 7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후에 달려가 성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김상열 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신도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훈훈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농민단체연합회(회장 김태선)도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농민단체연합회는 한농연과 농민회를 비롯한 농업 관련 2개 단체로 구성됐다. 단체별 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등 지역 농업의 핵심 주제로 활동하며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태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영광교회(목사 김지형)도 이날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지형 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원면 은선마을에 거주하는 이정희 어르신도 성금 50만원을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힘을 보탤다. 이정희 어르신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계획했던 일을 이렇게 실현에 옮기니 보람을 느낀다"며 "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

부안 송포항, 전북 지자체 최대 규모 총 9개소 추진... 총 사업비 890억원 달성

부안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송포항이 선정돼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산업특성으로 선정된 송포항은 총사업비 70억원을 3개년에 걸쳐 투자해 방파제 연장 및 증고, 안전부잔교 설치, 해녀해남복합센터 조성 등 어항구역 개선사업 및 어민소득 증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다. 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에 송포항이 추가 선정되면서 지역어민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해삼양식의 막대한 지출요소인 해녀·해남을 직접 양성해 타 시도 인건비 유출을 막아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군은 이번 송포항 선정으로 전북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9개소

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총사업비만도 890억원에 달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8개소에 이번에 추가 선정된 송포항까지 전북 지자체 최대 규모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통해 잠재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장점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정부 지원 외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장

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통해 정읍지역 출산장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1년 특별교부세 48억원 확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 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특별교부세 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확보된 사업별로는 부안 주상천 하천정비사업 10억원과 부안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구축 6억원, 부안 해물마루 진입로 개설사업 5억원 등이다.

특히 부안군 특별교부세는 지난 2019년 27억 5600만원에서 2020년 33억 7300만원,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5억원이나 증가한 48억 2200만원을 확보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소중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안 주상천 하천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상천 제방 유실 및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해예방 등 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안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은 기온·풍량·강수량·적설량 등의 실시간 기상관측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신속한 정보제공에 의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부안군청과 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